

대학원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成 賢 慶

(西江大 國語國文學科)

대학원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대학의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마다 국내외에서 박사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도 많이 나와 이제는 갈 곳이 없다. 박사 적체현상은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짙짙한 박사님들도 꽤 있지만 영터리 박사님들도 또한 꽤 섞여 있다. 대학들이 박사학위를 남발하고, 박사를 양산한 까닭이다.

대학 간판을 걸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또는 누구나 다 석사학위 과정과 박사학위 과정을 두고 대학원생들을 뽑아 고급 학위증을 수여하고 싶어 한다. 전임교수들의 손이 대학 강의를 감당하기에 도 턱없이 부족한데 대학원생까지 마구 뽑아들여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많은 대학들은 비용이 적게 드는 강사님들을 모셔들여 수지 타산을 맞춘다. 말하자면 장삿속으로 대학원을 두고, 장삿속으로 대학원을 경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들일수록 그 대학원생들의 실력은 형편없이 뒤쳐진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다. 그리할 수밖에.

대학 경영자들은 교육부의 해당 관료와 결탁하여 대학원의 각 학과를 만들어 놓고, 정원을 따내고 또 정원을 늘려 왔다. (세삼 모영기 사건을 들출 필요도 없다.) 그러더니만 이제는 너도 나도 이구동성으로 대학원 중심교육을 강조하고 나서고 있다. 대학의 강의를 충실히 감당할 만큼의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지도 못한 채 대학원 중심교육이라니 도저히 어불성설이다.

학교 혹은 교수가 대학원 강의를 충실히 하는지도 의심스럽다. 학생들은 또 어떠한가? 그저 소정기간 동안 적만 걸어 놓고 등록금만 꼬박꼬박 납부하면 학위논문 제출여건이 충족되고, 그러면 또 되는 대로 꾸린 논문을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된다고 여긴다.

영터리 논문들, 자격없는 이들의 학위——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리다. 논문, 특히 학위논문은 무엇보다도 독창성, 창의력이 그 생명이다. 학계에 기여하지 못하는 글, 남이 벌써 이야기한 학설 등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아니, 도리어 해독만 끼칠 따름이다.

이제는 한물 간 이론들에 의지하고 있는 논문들, 현재 학계에서 공인받고 있는 일반론의 수준에도 훨씬 못미치는 논문들, 남의 논문을 재탕한 논문들조차 버젓이 학위논문이란 이름을 달고 세상에 나오고 있는 오늘날의 이 기막힌 현실을 그저 가만히 앉아서 보거나, 계속 개탄만 하고 있어야

출판 말인가?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새로운 이론·새로운 설이기는 한데, 전혀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글도 있다. 설득력이 없는 논문 내지 그 속의 학설은 한낱 꾀변에 불과할 뿐, 진정한 의미의 새 것이 아니다. 이는 심사과정에도 역시 문제가 있음을 입증한다.

이렇게 무자격자에게 학위증을 수여한 대학일수록 교수채용에서 자기 대학 출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 영터리 박사들이 다시 강단에 서고, 그리하여 자기들과 유사한 제자들을 길러내고, 혹은 양산하고……。 이것이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우수한 대학의 우수한 박사들이나 양질의 박사들은 이례서 더욱 갈 곳이 없는 것이다.

대학원 교육 또는 대학원 중심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대학교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 인적·물적 제반 자원과 여건이 충족되어 있어야만 대학원 중심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학원은 대학교의 궁핍한 재정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또 그리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교육을 국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한다. 그런데 교육부의 몇몇 고급관료들이——아니 모리베들이——이처럼 중요한 교육정책을 담당하여 요모양 요꼴로 만들어 놓았다. 아니다. 어찌 그들만의 탓이겠는가. 학교를 그만 무슨 쟀가 남는 장사인 줄로만 알고, 회사인 줄로만 알고 설립·경영해온 재단 관련자들 및 여기에 부화뇌동한 지각없는 일부 교수들 또한 교육을 망쳐 놓은 장본인들이다. 오늘날의 이와 같은 기현상들이 빚어진 것이 바로 이 무양식자들의 궁합·잇속·의사가 적적 들어맞은 결과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렇다면 이 혼미한 질서를 바로잡을 대안은 무엇인가? 대학 내지 대학원 운영의 불합리성을 제거할 합리적 대안은 무엇인가? 영터리 학위증을 더 이상 찍어내지 않을 획기적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 대학들이 양심을 되찾는 일이 시급하다. 스스로 양심껏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대학원 과정을 폐지하는 일이 필요하다. 아무 학생이나 다 받아들이는 폐습이 하루빨리 지양되어야 한다. 교수들이 객관성·창의성을 지니지 못한 논문들에 대해서 ‘인정’을 베풀지 않는 냉정성을 되찾는 일 또한 필요하다. 이처럼 대학원이 정비되어야 한다.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과 일반(4년제)대학을 따로 나누어 운영·관리하듯이, 대학원을 따로 떼어 운영·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 모른다. 아니면 대학원 교육을 전담 내지 주담(주로 담당)할 전임교수를 따로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원이 개설된 각 대학(학부)의 과 교수들을 대폭 증원·충원해야 할 것이다.

어느 시한을 정해 놓고 만일 이 기간 안에 각 대학이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그 때는 교육부가 어떠한 방침을 강구해 보아야 한다고 본다. 이 때 강제 아닌 대학의 방법이 혹은 권장하는 방법이 보다 더 효과적일지 모른다.

한편, 학위 수여 예정자들 내지 학위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국가고시(교수 자격시험) 같은 것을 실시하여 (무)실력자·(무)자격자들을 가려내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무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 양질의 자원이 저질의 자원 때문에 밀려나는 풍토는 더 늦기 전에 하루속히 개선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풍토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결코 정상화될 수 없다. 더욱이 이제 는 지구촌시대·국제화시대에 접어들지 않았는가? 선진국의 대학들 내지 그들의 교육과 어깨를 겨누고 경쟁해야만 하고, 또 그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이 낙후와 퇴보의 길을 계속 걸어가려 하는가? ■